

## 궁귀조혈음가미방(芎歸調血飲加味方)을 복용한 여성의 산욕 초기 증상과 어혈 변화에 대한 연구

<sup>1</sup>라연한의원 <sup>2</sup>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 의학과 <sup>3</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최석영<sup>1,2</sup>, 김찬우<sup>1</sup>, 김남훈<sup>3</sup>, 박경선<sup>3</sup>, 황덕상<sup>3</sup>, 이진무<sup>3</sup>, 이창훈<sup>3</sup>, 장준복<sup>3</sup>

###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Early Puerperium Symptoms and Blood Stasis Index of Women Taking *Gungguijohyeol-eum-gamibang*

Seok-Young Choi<sup>1,2</sup>, Chan-Woo Kim<sup>1</sup>, Nam-Hoon Kim<sup>3</sup>, Kyoung-Sun Park<sup>3</sup>  
Deok-Sang Hwang<sup>3</sup>, Jin-Moo Lee<sup>3</sup>, Chang-Hoon Lee<sup>3</sup>, Jun-Bock Jang<sup>3</sup>

<sup>1</sup>Layeon Korean Medical Clinic

<sup>2</sup>Dept.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up>3</sup>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early puerperium symptoms and Blood Stasis Index in women during the first two weeks after childbirth.

**Methods:** 38 women staying at Korean postpartum management facilities were studied. Questionnaires were filled out on the date of arrival and departure. Changes in overall physical conditions including neuropsychiatric, circulatory, digestive, musculoskeletal, and urogenital and breast symptoms as well as Blood Stasis Pattern were studied.

#### Results:

1. Neuropsychiatric symptoms were shown in order of Depressed Feeling, Insomnia, Dizziness, Headache, and Easy to Anger and Nervous on arrival. All symptoms showed improvement after two weeks, without significance.

2. Circulatory symptoms were shown in order of Excessive Sweating, Edema, Fatigue, Hot Flash, Anemic Feeling, Alternating Chills and Fever, Cold Hypersensitivity, Chills, Oppression in the Chest, and Palpitation on arrival. Hot Flash, Excessive Sweating, and Edema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wo weeks.

3. Digestive symptoms were shown in order of Dyspepsia, Dry Mouth, Constipation, and Loss of Appetite. All symptoms showed improvement after two weeks, without significance.

4. Pain of Muscles & Joints showed improvement after two weeks, without significance. Pain of Teeth & Gingiva showed slight worsening after two weeks, without significance.

5. Urogenital and Breast symptoms were shown in order of Wound Pain, Fever and Distending Pain in the Breast, and Lower Abdominal Pain on arrival. All symptom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wo weeks.

6. Blood Stasis Index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wo weeks.

**Conclusion:** Most symptoms were improved in women staying at Korean postpartum management facilities for two weeks. Hot Flash, Excessive Sweating, Edema, Wound Pain, Lower Abdominal Pain, Fever and Distending Pain in the Breast and Blood Stasis Index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Key Words:** Postpartum Symptoms, Korean Postpartum Management Facilities, Early Puerperium Symptoms, Blood Stasis Index, *Gungguijohyeol-eum-gamibang*

## I. 서 론

‘산욕기(産褥期)’는 태아, 태반 및 그 부속물을 만출한 후에 생식기관이 비임신 상태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일정한 기간으로 대략 6~8주가 소요된다<sup>1)</sup>. 산욕은 원래 임신과 같이 하나의 생리현상이지만 대체로 체력이 허약해 있는 상태이므로 생활과 섭생을 통하여 산욕의 복구를 촉진하고 허약으로 인한 합병증 내지 병발증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력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sup>2)</sup>. 오늘날 경제 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 출산빈도의 감소 등으로 산후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통해 임신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원하며 그 이면에는 산후조리는 전통적인 문화적 신념을 따르면서 산후풍을 예방하고 출산 이전의 미용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문화적 신념도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3)</sup>.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은 양방에서 인식하고 있는 산후조리 기간(자연분만은 산후 2~3일, 제왕절개인 경우 7일, 최대한 하여도 6주)과 상관없이 고래로 행해왔던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소한 1개월에서 100일까지는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학 문헌에서 1개월부터 100일까지의 기간에 강조되는 주의사항과 조리방법이 존재하는 것과 일치하는 인식이다. 산후조리 장소로는 초기에는 병원, 산후조리원, 후기에는 집에서 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산후조리원의 입실 기간으로 1주일 미만이 6.38%,

1주일 이상 2주 미만이 39.01%, 2주 이상 3주 미만이 32.62%, 3주 이상 4주 미만이 9.22%를 차지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집중적인 산후관리를 받는 기간은 약 2주 정도로 나타났다<sup>5)</sup>.

산후조리원 퇴실 후 친정의 도움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생아 돌보는 것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산모의 회복이 우선 시 되기 쉽지 않아 산후조리기간 중에도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욕 초기 산모의 건강 회복이 중요하다.

한방산후조리 후 산모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지금까지의 논문을 살펴보면, 체성분을 이용한 분석과 혈액 검사를 이용한 분석이 있었다. 각 연구마다 산후 증상 변화의 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는데, 체성분 분석을 통하여 출산 2주<sup>6-8)</sup>, 8주<sup>9)</sup>, 3개월 이후<sup>10)</sup> 산후 부종과 체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혈액검사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산후조리클리닉 입원 당시와 2주 후의 혈액 변화를 살펴본 연구<sup>11,12)</sup>가 있었다. 산후 여성의 체성분 변화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전반에 대한 문 등<sup>13)</sup>의 연구는 출산한지 3개월에서 24개월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성분 및 혈액검사와 산후풍 관련된 신체 증상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방산후조리가 장기적으로 출산 여성의 건강 및 체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산후에는 胞宮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혈이 쉽게 정체하여 胞宮에 응체되고 舊血이 제거되지 못하여 瘀證이 많은데<sup>1)</sup> 산후조리원에서 산욕기 초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어혈 상태에 대해 연구하고, 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芎歸調血飲加味方을 복용한 산모의 증상 호전도와 어혈의 변화 상태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 II.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4일까지 한방산후조리원 공 3개 지점(강서, 구의, 상암)에 입실한 산모 중 2주간(13박 14일) 입실한 산모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42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42명의 설문지 중 4명의 설문지는 불완전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38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입실 당일부터 芎歸調血飲加味方(당귀 3 g, 천궁 3 g, 백출 3 g, 복령 3 g, 건지황 3 g, 진피 3 g, 향부자 3 g, 오약 3 g, 건강 3 g, 익모초 3 g, 목단피 3 g, 감초(자) 3 g, 생강 6 g, 대조 4 g, 단삼 4 g(7첩 20팩, 100 cc))을 하루 2번(아침, 저녁 식후) 총 10일간 복용하였다.

### 2. 연구 방법

산후조리원 입실 산모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및 건강상태와 어혈 정도를 살펴보았다. 입실일과 퇴실일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 문항에 대해 당시 해당되는 신체 증상 및 어혈 증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 1) 일반 특성, 체중 및 건강상태
  - (1) 일반 특성(연령, 분만 형태, 초산/

경산, 과거력 및 약 복용 여부)

- (2) 체중(임신 전 체중, 출산 직전 체중)
- (3) 정신신경계 증상(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우울감, 신경질적)
- (4) 순환기계 증상(상열감, 오한, 한열왕래, 심계, 다한, 부종, 냉증, 빈혈감, 피로감, 홍민)
- (5) 소화기계 증상(구건, 식욕저하, 소화불량, 변비, 설사)
- (6) 근골격계 증상(근육관절통증, 치아잇몸통증)
- (7)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증상(불합부위통증, 하복통, 유방창통)

모든 증상을 점수화하기 위해 (3)~(7)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그렇지 않다'는 2,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 '보통이다'는 4, '약간 그렇다'는 5, '그렇다'는 6, '매우 그렇다'는 7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부종, 냉증, 근육관절통증은 추가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 2) 어혈변증지수

어혈변증지수는 양 등<sup>14)</sup>이 개발한 어혈변증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 (1) 발목이나 손목, 허리가 뼈긋한 일로 통증이 있습니까?
- (2) 최근에 넘어지거나 심하게 부딪친 일로 통증이 있습니까?
- (3) 일정 부위의 저림 증상이 오래도록 낫지 않습니까?
- (4) 몸이 쭈시듯이 아릅니까?
- (5) 아랫배가 아릅니까?
- (6) 옆구리가 아릅니까?
- (7) 야간에 쭈시고 아파서 잠자기 힘들습니까?

- (8) 복부에 덩어리가 느껴집니까?
- (9) 멍이 잘 듭니까?
- (10) 얼굴색이 검습니까?
- (11) 입술, 혀, 잇몸색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띠며 어둡습니까?
- (12) 눈 밑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띠며 어둡습니까?
- (13) 대변색이 검습니까?
- (14) 지금까지 받은 수술(마취 후) 횟수를 체크해주세요.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1점부터 매우 심한 경우 7점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어혈변증지수는 어혈변증설문지 14 문항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 3. 통계 처리

통계 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7.0)를 이용하였으며 각 결과의 수치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고, 신체 증상 및 어혈변증지수의 전후 비교는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여 p<0.05 수준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Ⅲ. 결 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3~37세로 평균 32.18±2.85세였다. 임신 전 체중은 평균 55.37±7.73 kg, 출산 직전 체중은 평균 67.13±8.92 kg으로 증가한 체중의 평균은 11.76±3.76 kg이었다(Table 1). 조사 대상자 중 초산부는 30명(78.9%)으로 경산부 8명(21.1%)보다 많았고, 분만 방식은 정상분만이 26명(68.4%), 제왕절개수술이 12명(31.6%)으로 나타났다(Fig.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tandard deviation
Age (years)	32.18±2.85
Weight before pregnancy (A) (kg)	55.37±7.73
Weight before delivery (B) (kg)	67.13±8.92
Difference in weight (B-A) (kg)	11.76±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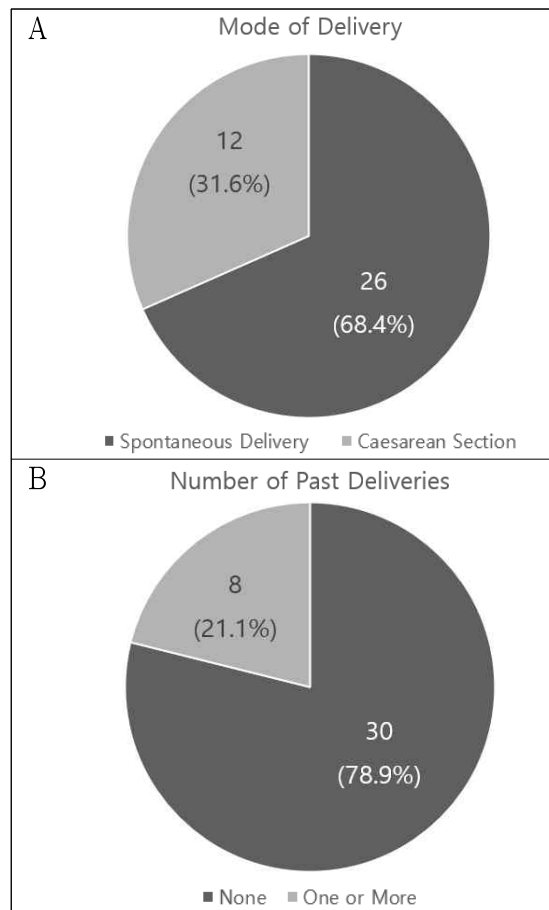


Fig. 1. Mode of delivery (A) and number of past deliveries (B).

### 2. 병력 및 복용약

조사 대상자 중 과거 진단받은 병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4명(10.5%)으로 심신성고혈압 1명, 만성신장염 1명, 심실중격결손과 삼천판역류 1명, 자궁근종 1명이었다. 복용하는 약으로는 철분제를 복용

하는 자가 1명이었다.

### 3. 산후조리원 입실 및 퇴실 시 정신신경계 증상

정신신경계 증상으로는 입실 시 우울감(3.03±1.684), 수면장애(2.76±1.567), 어지럼증(2.68±1.817), 두통(2.42±1.750), 신경

예민(2.29±1.450) 순으로 나타났고, 퇴실 시 우울감(2.66±1.615), 수면장애(2.47±1.330), 어지럼증(2.34±1.361), 신경예민(2.08±1.239), 두통(1.97±1.102) 순이었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Table 2. Changes in Neuropsychiatric Symptoms during Postpartum Management

Symptoms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Difference of mean (p-value)
Headache	2.42±1.750	1.97±1.102	0.45 (0.187)
Dizziness	2.68±1.817	2.34±1.361	0.34 (0.083)
Insomnia	2.76±1.567	2.47±1.330	0.29 (0.277)
Depressed feeling	3.03±1.684	2.66±1.615	0.37 (0.18)
Easy to anger and nervous	2.29±1.450	2.08±1.239	0.21 (0.193)

Values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pain or discomfort on a scale of 1 to 7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 4. 산후조리원 입실 및 퇴실 시 순환기계 증상

순환기계증상으로는 입실 시 다한(4.63±1.807), 부종(4.32±2.157), 피로감(3.39±1.868), 상열감(3.05±1.754), 빈혈감(2.97±1.602), 한열왕래(2.95±1.723), 냉증(2.66±1.457), 오한(2.37±1.550), 흉민(2.26±1.223), 심계(2.11±1.331) 순으로 나타났고, 퇴실 시 다한(3.47±1.983), 피로감(3.29±1.844), 부종(3.05±1.708), 한열왕래(2.79±1.647), 빈혈감(2.63±1.601), 상열감(2.42±1.482), 냉증(2.39±1.326), 오한(2.39±1.306), 흉민(1.95±0.868), 심계(1.84±0.973) 순이었다. 입실 당시에 비

해 퇴실 시 증상은 오한을 제외한 증상이 모두 감소하였고, 그 중 상열감, 다한, 부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Table 3).

부종 부위에 대한 서술형 복수 응답으로는 '다리'라고 응답한 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이 8명, '발'이 6명, '하체'가 3명, '전신'이 2명, '얼굴'이 2명으로 조사되었다. 냉증 부위에 대한 서술형 복수 응답으로는 '발'이라고 응답한 자가 3명, '다리가 2명, '손'이 1명, '배'가 1명, '전신'이 1명으로 나타났다.

Table 3. Changes in Circulatory Symptoms during Postpartum Management

Symptoms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Difference of mean (p-value)
Hot flash	3.05±1.754	2.42±1.482	0.63 (0.013*)
Chills	2.37±1.550	2.39±1.306	-0.03 (0.851)
Alternating chills and fever	2.95±1.723	2.79±1.647	0.16 (0.366)
Palpitation	2.11±1.331	1.84±0.973	0.26 (0.502)
Excessive sweating	4.63±1.807	3.47±1.983	1.16 (0*)
Edema	4.32±2.157	3.05±1.708	1.26 (0*)
Cold hypersensitivity	2.66±1.457	2.39±1.326	0.26 (0.305)
Anemic feeling	2.97±1.602	2.63±1.601	0.34 (0.159)
Fatigue	3.39±1.868	3.29±1.844	0.11 (0.46)
Oppression in the chest	2.26±1.223	1.95±0.868	0.32 (0.074)

Values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pain or discomfort on a scale of 1 to 7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Wilcoxon signed-rank test (p-value<0.05)

### 5. 산후조리원 입실 및 퇴실 시 소화기계 증상

소화기계 증상으로는 입실 시 소화불량(4.76±1.651), 구건(3.79±1.975), 변비(3.16±1.763), 식욕저하(3.05±1.627), 설사(2.11±1.331) 순으로 나타났고, 퇴실 시 소화

불량(4.39±1.669), 구건(3.45±1.841), 식욕저하(3.00±1.740), 변비(2.63±1.532), 설사(1.89±1.351) 순이었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Changes in Digestive Symptoms during Postpartum Management

Symptoms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Difference of mean (p-value)
Dry mouth	3.79±1.975	3.45±1.841	0.34 (0.081)
Loss of appetite	3.05±1.627	3.00±1.740	0.05 (0.639)
Dyspepsia	4.76±1.651	4.39±1.669	0.37 (0.163)
Constipation	3.16±1.763	2.63±1.532	0.53 (0.114)
Diarrhea	2.11±1.331	1.89±1.351	0.21 (0.375)

Values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pain or discomfort on a scale of 1 to 7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 6. 산후조리원 입실 및 퇴실 시 근골격계 증상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입실 시 근육관절통증(3.87±1.920)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퇴실 시 약간 감소(3.55±1.735)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치아잇몸통증

(2.37±1.441)의 경우 퇴실 시 약간 증가(2.45±1.537)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able 5).

근육관절통증 부위에 대한 서술형 복수 응답으로는 '손목'이라고 응답한 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가 5명, '손'

이 5명, '팔'이 3명, '허리'가 3명, '무릎'이 3명, '발목'이 3명, '발바닥'이 1명, '골반'이 1명, '등'이 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Changes in Musculoskeletal Symptoms during Postpartum Management

Symptoms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Difference of mean (p-value)
Pain of muscle & joints	3.87±1.920	3.55±1.735	0.32 (0.255)
Pain of teeth & gingiva	2.37±1.441	2.45±1.537	-0.08 (0.883)

Values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pain or discomfort on a scale of 1 to 7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7. 산후조리원 입실 및 퇴실 시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증상**

비뇨생식계 및 유방 증상으로는 입실 시 봉합부위통증(4.47±1.797), 유방창통(3.71±2.012), 하복통(3.58±1.718) 순으로 나타

났고, 퇴실 시 봉합부위통증(2.63±1.584), 하복통(2.58±1.426), 유방창통(2.55±1.288) 순이었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Table 6).

Table 6. Changes in Urogenital and Breast Symptoms during Postpartum Management

Symptoms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Difference of mean (p-value)
Wound pain	4.47±1.797	2.63±1.584	1.84 (0*)
Lower abdominal pain	3.58±1.718	2.58±1.426	1.00 (0.01*)
Fever and distending pain in the breast	3.71±2.012	2.55±1.288	1.16 (0.006*)

Values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pain or discomfort on a scale of 1 to 7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Wilcoxon signed-rank test (p-value<0.05)

**8. 산후조리원 입실 및 퇴실 시 어혈변증지수**

어혈변증지수는 입실 시(32.47±11.535),

퇴실 시(26.55±10.516)로 나타나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Table 7).

Table 7. Changes in Blood Stasis Index during Postpartum Management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Difference of mean (p-value)
Blood stasis index	32.47±11.535	26.55±10.516	5.92 (0*)

Blood stasis index i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sum of scores from 14 items on the Blood Stasis Questionnaire. Pain or discomfort was rated on a scale of 1 to 7 for each item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Wilcoxon signed-rank test (p-value<0.05)

**9. 산후조리원 입퇴실 시 가장 심하게 호소한 10개 증상과 호전 정도**

산후조리원 입실 시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소화불량, 다한, 봉합부위통증, 부종, 근육관절통증, 구건, 유방창통, 하복통, 피로감, 변비 순으로 나타났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은 모두

감소하고, 그 중 다한, 봉합부위통증, 부종, 유방창통, 하복통은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퇴실 시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소화불량, 근육관절통증, 다한, 구건, 피로, 부종, 식욕저하, 한열왕래, 우울감, 빈혈감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8. Ten Most Severe Symptoms on Day of Arrival and Departure of Postpartum Management

	Day of arrival	Day of departure
1	Dyspepsia (4.76±1.651)	Dyspepsia (4.39±1.669)
2	Excessive sweating (4.63±1.807)	Pain of muscle & joints (3.55±1.735)
3	Wound pain (4.47±1.797)	Excessive sweating (3.47±1.983)
4	Edema (4.32±2.157)	Dry mouth (3.45±1.841)
5	Pain of muscle & joints (3.87±1.920)	Fatigue (3.29±1.844)
6	Dry mouth (3.79±1.975)	Edema (3.05±1.708)
7	Fever and distending pain in the breast (3.71±2.012)	Loss of appetite (3.00±1.740)
8	Lower abdominal pain (3.58±1.718)	Alternating chills and fever (2.79±1.647)
9	Fatigue (3.39±1.868)	Depressed feeling (2.66±1.615)
10	Constipation (3.16±1.763)	Anemic feeling (2.63±1.601)

Values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pain or discomfort on a scale of 1 to 7 (1=no pain or discomfort, 7=the worst imaginable pain or discomfort).

**IV. 고 찰**

산후에는 임신과 분만에 의해 야기되었던 생식기 및 전신의 변화가 서서히 비임신 시의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데 이 기간을 산욕기라 한다. 개인차는 있으나 대체로 분만 후 6~8주가 되면 생식기의 복구과정은 거의 완료된다. 그러나 그 외의 전신의 회복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시기에 육아나 가사, 스트레스, 불면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증가하면서 섭생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각종 산후병이 발생할 수 있다<sup>1)</sup>.

산욕기는 산모를 비롯해 새롭게 탄생

한 가정에게 주어진 전환의 시간으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방면에서 적응이 필요한 기간이다. 양방의 산욕기 관리는 산욕부의 자궁의 회복, 오로, 회음관리, 유방관리, 성생활, 피임, 소변대변, 영양관리, 휴식관리, 안정기동, 산욕체조의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4)</sup>. 산후조리 개념이 특별히 없는 북미 지역의 경우 출산 후 병원 입원 기간이 질식 분만을 한 산모는 48시간 미만으로, 그 이후 산후 관리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5)</sup>.

한의학에서는 산후 1개월을 ‘소만월(小滿月)’, 산후 2개월을 ‘대만월(大滿月)’



로 표현하였고, 산후 100일 이내를 '백일 위도(百日爲度)'라고 표현하여<sup>1)</sup> 산후조리 기간을 약 100일로 보았다. 문헌에서는 唐代의 孫思邈이 《備急千金要方》<sup>16)</sup>에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이후 《東醫寶鑑》<sup>17)</sup> 등 여러 문헌에서 산후에 虛하지 않도록 하며 마땅히 氣血을 補해야 한다고 하여 산후의 관리를 중요시하였다.

산후병의 특징은 '多虛'와 '多瘀'이다. 분만 중에 용력이 과다하고 산도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산모가 원기가 손상되고 기혈이 부족하여 百脈이 공허하게 되어 산후에는 虛症이 많다. 또한 산후에는 胞宮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혈이 쉽게 정체하여 胞宮에 응체되고 舊血이 제거되지 못하여 瘀證이 많다<sup>1)</sup>.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산후질환의 주원인을 氣血不足과 瘀血로 인식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산욕 초기에 芎歸調血飲과 같은 한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저자는 산후조리원에서 芎歸調血飲加味方을 복용하며 산후조리를 수행한 여성들의 산욕 초기 증상의 변화와 어혈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4일까지 한방산후조리원 궁 3개 지점(강서, 구의, 상암)에 13박 14일간 입실한 산모들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및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증상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어혈변증설문지를 통해 어혈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한 항목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어혈과 관련해서는 양 등<sup>14)</sup>이 개발한 어혈변

증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윤 등<sup>18)</sup>에 의한 부인과 어혈변증설문지도 있었으나 출산 직후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월경 및 출산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어혈변증설문지가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설문지는 상기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들에게 입실 당일과 퇴실 당일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출산 직후 산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라 108명의 산모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는데, 회수율이 39%로 저조한 편이었고 불완전 응답도 포함되어 좀 더 많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모든 산모들은 입실 당일부터 芎歸調血飲加味方을 하루 2번(아침, 저녁 식후) 총 10일간 복용하였다. 芎歸調血飲은 '產後去血過多 以致發熱, 心煩, 腹痛, 頭暈眼花, 或口噤, 神昏'하는데 사용되는 처방으로, 補血益氣 補脾益胃 活血化瘀 溫經散寒하는 효능이 있어 출산 후 正氣虛와 瘀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17)</sup>. 여기에 소화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숙지황을 건지황으로 변경하고, 活血祛瘀, 調經止痛, 養血安神, 涼血消癰 효능이 있는 丹參을 가미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3~37세로 평균 32.18세였고, 조사 대상자 중 초산부는 30명(78.9%)으로 경산부 8명(21.1%)보다 많았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sup>19)</sup>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4세,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조사 대상자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늦은 출산과 적은 자

너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만 방식은 정상분만이 26명(68.4%), 제왕절개수술이 12명(31.6%)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이 2006년 35.4%에서 2015년에는 39.1%로 10년 사이 약 4%가 높아졌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신 여성의 체중 변화는 식사 제한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임신부의 경우 전체 임신 기간 중 대략 12.5 kg의 체중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임신 전 체중은 평균 55.37 kg, 출산 직전 체중은 평균 67.13 kg로 평균 11.76 kg의 증가를 보여 이와 유사하였다.

정신신경계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불면, 우울감, 신경예민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에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순환기계 증상으로는 상열감, 오한, 한열왕래, 심계, 다한, 부종, 냉증, 빈혈감, 피로감, 흉민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입실 당시 다한, 부종, 피로감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은 오한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고, 그 중 상열감, 다한, 부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산욕 초기 다한은 新産後(분만 후 7일 이내) 氣血이 偏虛하고 陰陽이 일시적으로 평형을 잃어 腠理가 不密하여 산후에 汗出이 평소보다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sup>1)</sup>. 출산 후의 산모는 가벼운 부종에서 함요 부종까지 다양한 정도의 전신성 부종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부종은 분만 후 일주일 동안 소변과 땀

으로 2.23-3.6 L 정도의 수분이 다량 배출되면서 부종이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한의학적으로는 산후 부종에 대해 《東醫寶鑑》 婦人門<sup>17)</sup>에서는 “산후 부종은 나쁜 피가 경맥을 따라 사지로 흘러들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血이 운행되면 부종이 사라지고 곧 낫는다. 혹은 나쁜 피가 몰렸다가 몰로 변하여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산후 부종은 반드시 氣血을 강하게 보해 주는 것을 주로 해야 하며 강한 이뇨제를 써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였다. 부종 부위에 대한 서술형 복수 응답으로는 '다리'라고 응답한 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이 8명, '발'이 6명, '하체'가 3명, '전신'이 2명, '얼굴'이 2명으로 조사되어 사지 중에서도 하체와 손이 가장 많이 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욕 초기 심한 피로감은 산모가 평소 허약체질이거나 임신 중 기존 질환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분만으로 인해 亡血傷津하고 精氣가 소모되어 산후의 虛損이 회복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또는 분만이 순조롭지 못하여 氣血이 과도하게 손상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임신 전부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확인하고 대처하며 임신 후에는 섭생에 주의해야 한다<sup>1)</sup>.

소화기계 증상으로는 구건, 식욕저하, 소화불량, 변비, 설사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입실 당시 소화불량, 구건, 변비를 심하게 호소하였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산후 변비는 去血過多, 汗出 등으로 亡津液, 失血하여 대장이 乾燥秘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양 의학적으로는 황체 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대소장 평활근의 연동운동이 지

연되어 유발된다<sup>21)</sup>. 산욕 초기 소화불량은 위장관 운동의 저하와 변비로 인해 생기기 쉽고, 산욕 초기 구건은 수유나 발한으로 인해 다량의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근골격계 증상으로는 입실 시 근육관절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퇴실 시 약간 감소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치아잇몸통증의 경우 퇴실 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의학적으로 산후 遍身疼痛에 대하여 산후에는 百節이 開張하고 血脈이 流散하므로 경락과 分肉之間에 惡血이나 風寒邪가 流滯하기 쉬우며 이것이 累日不散하면 骨節이 不利하고 筋脈이 急引하여 전신의 근맥과 골절에 동통이 발한다고 하였다<sup>22)</sup>. 근육관절통증 부위에 대한 서술형 복수 응답으로는 ‘손목’이라고 응답한 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가 5명, ‘손’이 5명, ‘팔’이 3명, ‘허리’가 3명, ‘무릎’이 3명, ‘발목’이 3명, ‘발바닥’이 1명, ‘골반’이 1명, ‘등’이 1명 순으로 조사되어 수유에 사용되는 손목, 어깨, 손, 팔 등에 가장 통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증상으로는 봉합부위통증, 하복통, 유방창통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입실 당시 봉합부위통증, 유방창통, 하복통 모두 심하게 호소하였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산욕 초기 봉합부위통증은 질식 분만 후 며칠 동안 회음 절개 및 열상으로 불편하게 될 수 있으며 회음 절개는 정상적으로 잘 치유되는 경우 분만 3주 후면 거의 증상이 없어진다<sup>23)</sup>. 산후에 胃脘部, 臍腹部, 小腹部가 아픈 것이 모두 산후 복통에 속하는데, 특히 분만 후 자궁 수

축으로 인해 小腹部가 발작적으로 동통하는 것을 산후 소복통, 혹은 아침통(兒枕痛)이라고 한다. 산후 복통과 산후 아침통(산후 소복통)의 명칭은 혼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적으로는 그 주된 원인을 血瘀, 血虛, 外感寒邪, 飲食傷, 七情傷 등으로 보고 있다<sup>24)</sup>. 산욕 초기 유방창통은 정상적인 유즙분비의 전조로 수유를 시작한 후 수일간 정맥의 확장과 초기 유즙분비로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유방창통은 모유의 축적으로 유선포(mammary alveoli)가 팽창되어 주변 유관을 압박하고 이차적으로 혈관 및 림프 압박을 유도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산후 3~5일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sup>25)</sup>.

어혈변증지수는 입실 시(32.47±11.535), 퇴실 시(26.55±10.516)로 나타나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산후는 분만으로 인한 惡露 등으로 瘀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증은 체내의 일정 부위에 혈액이 瘀滯되어 있는 병증으로 산후에는 胞宮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혈이 쉽게 정체하여 胞宮에 응체되고 舊血이 제거되지 못하여 瘀證이 많다<sup>1)</sup>. 산후에 血室이 열려 있을 때 寒邪가 胞宮에 침범하고 血과 서로 결합되어 寒凝血瘀하게 되거나 七情內傷으로 氣鬱血滯하거나 산후에 元氣가 이미 虧損되었는데 다시금 과로로 耗氣하고 氣虛로 運血할 수 없으며 餘血이 留滯하여 瘀血을 조성하거나 분만 시 처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惡血이 內留하고 新血이 歸經하지 못하여 발생한다<sup>1)</sup>.

산후조리원 입실 시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소화불량, 다한, 봉합부위통증, 부종, 근육관절통증, 구건, 유방창통, 하복통, 피로감, 변비 순으로 나타났다.

입실 당시에 비해 퇴실 시 증상은 모두 감소하였고 그 중 다한, 봉합부위통증, 부종, 유방창통, 하복통은 유의한 감소가 있어 산욕 초기 2주 동안 크게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퇴실 시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소화불량, 근육관절통증, 다한, 구진, 피로감, 부종, 식욕저하, 한열왕래, 우울감, 빈혈감 순으로 조사되어 소화불량, 근육관절통증, 다한, 구진, 피로감, 부종은 감소되긴 하였어도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芎歸調血飲加味方을 복용하며 산후조리를 수행한 38명의 여성에 대하여 산욕 초기 건강 상태 및 어혈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출산 직후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 경향을 보이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산후 병증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多虛’, ‘多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혈을 몰아내고 허한 것을 보하는<sup>17)</sup> 한방산후조리원칙이 산모들의 산욕기 회복을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산모와의 비교 및 대조 연구가 없는 점과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은 점이 결점으로 사료된다. 추후에 자연분만 산모와 제왕절개수술 산모의 증상 변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비롯해 산욕기가 끝나는 시점 및 산후조리기간으로 인식되는 100일 후 증상의 변화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상으로 다한, 부종, 피로감, 상열감 순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그 중 상열감, 다한, 부종은 퇴실 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2. 소화기계 증상으로 입실 시 소화불량, 구진, 변비, 식욕저하 순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퇴실 시 증상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근골격계 증상으로는 입실 시 근육관절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퇴실 시 약간 감소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치아잇몸통증은 퇴실 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4.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증상으로는 입실 시 봉합부위통증, 유방창통, 하복통 순이었고 퇴실 시 증상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5. 어혈변증설문지에 의한 어혈변증지수는 입실 시  $32.47 \pm 11.535$ 에서 퇴실 시  $26.55 \pm 10.516$ 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6.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실 시 가장 심하게 호소한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다한, 봉합부위통증, 부종, 근육관절통증, 구진, 유방창통, 하복통, 피로감, 변비 순이었고 퇴실 시에는 소화불량, 근육관절통증, 다한, 구진, 피로감, 부종, 식욕저하, 한열왕래, 우울감, 빈혈감 순이었다.

□ Received : Jan 05, 2018

□ Revised : Jan 26, 2018

□ Accepted : Feb 14, 2018

## V. 결 론

1.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실 시 순환기계

## References

1.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II). Seoul:Uiseongdang. 2012:691-2, 698, 765, 788-93.
2. Lee YH, Lee TK. Postnatal Management i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J Korean Obstet Gynecol. 2000;13(1):500-17.
  3. Lee TK. Postnatal Management i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II).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209-28.
  4. Kang KH, Baek SH. Pregnant Women's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Korean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0;13(1):376-402.
  5. Heo JW, Kim SR.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Realities of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409-23.
  6. Cho HL, et al. The Clinical Study of Postpartum Edema. J Korean Obstet Gynecol. 2002;15(3):151-61.
  7. Kim HJ, Ki JY. A Study on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in Postpartum under the Sasang Constitution. J Korean Obstet Gynecol. 2004;17(1):167-77.
  8. Kim GH, et al. A Study on the Effect of *Omibaekchul-san* on Postpartum Edema - Comparison with *Saenghwa-tang*. J Korean Obstet Gynecol. 2015;28(2):91-108.
  9. Ha JI, Kim DI. The effect of *Kami-Saenghwatang* and *Kami-Bohertang* to Postpartum Weight Retention. J Korean Obstet Gynecol. 2007;20(2):164-75.
  10. Lim JH, et al. A Study about Factors Influencing on Postpartum Body Composition, Change of BMI and Body Fat. J Korean Obstet Gynecol. 2002;15(1):175-84.
  11. Choi SW, Kim JY. Effect of Oriental Postpartum Management on the Hematology and Blood Chemistry in Puerperium Maternity. J Korean Med. 2002;22(4):121-30.
  12. Moon SH, Kim JY. The Effect of the Oriental Postpartum Care in Hemoglobin Changes of Maternity. J Korean Med. 2002;23(1):112-9.
  13. Moon SH, Kim JY. A Study on Women's Health and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fter Korean Postpartum Management. J Korean Obstet Gynecol. 2003;16(4):144-60.
  14. Yang DH, et al.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for Blood Stasis Pattern. J Korea Inst Orient Med Diagn. 2006;10(1):141-52.
  15. Shaw E, et al.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Postpartum Care: Effectiveness of Postpartum Support to Improve Maternal Parenting, Mental Health,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Health. Birth. 2006;33(3):210-20.
  16. Son SM. Bigeupcheongeumyobang. Seoul :Daeseongmunhwasa. 1992:71-2.
  17. Heo J. Donguibogam. Gyeongnam: Dongeuibogamchulpansa. 2006:1798-9, 1808-10.
  18. Yoon YJ. A Fundamental Study to Make a Questionnaire of Blood Stasis

- Specially Designed for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1):92-108.
19. Statistics Korea. Birth Data of 2016 [distributed August 29, 2017]. Available from: URL: [http://kostat.go.kr/office/dbro/rodb\\_\\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13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ext=%EC%B6%9C%EC%83%9D+%ED%86%B5%EA%B3%84](http://kostat.go.kr/office/dbro/rodb_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13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ext=%EC%B6%9C%EC%83%9D+%ED%86%B5%EA%B3%84).
20. Lee DK, et al. Weight Change in the Postpartum Period. *J Korean Med.* 2004;25(1):205-12.
21. Baek SH, et al. Comparative Study on Constipation in Pregnancy and after Delivery. *J Korean Obstet Gynecol.* 1994;7(1):13-30.
22. Choi ES, Lee IS. Literature Study on the Cause and Treatment of Postpartum Wind-Stroke. *J Korean Obstet Gynecol.* 1999;12(1):253-78.
23.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I)*. Seoul: Uiseongdang. 2012:342.
24. Yoon MH. Literary Study on the Cause of Postpartum Abdominal Pain. *J Korean Obstet Gynecol.* 1991;4(1):67-82.
25. Berens P, et al. ABM Clinical Protocol #20: Engorgement, Revised 2016. *Breastfeed Med.* 2016;11(4):159-63.

## 〈별첨. 산욕 초기 증상과 어혈 변화 설문지〉

- ♣ 성명 : \_\_\_\_\_ 연령(만) : \_\_\_\_\_  
출산 일자 : \_\_\_\_\_ (임신 주 일차)  
조리원 입실일 : \_\_\_\_\_ 퇴실일 : \_\_\_\_\_  
정상분만( ) 제왕절개( )  
초산부( ) 경산부( )
- ♣ 체중변화  
임신 전 체중 : \_\_\_\_\_ 출산 직전 체중 : \_\_\_\_\_
- ♣ 기존에 진단 받은 질환이 있습니까? (진단명 : \_\_\_\_\_ )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습니까? (약 종류 : \_\_\_\_\_ )

본 문진표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인은 위 문진표 내용을 임상 연구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

♣ 조리원 입실하시는 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

Neuropsychiatric Symptoms	1	2	3	4	5	6	7
두통이 있습니까?							
어지럼증이 있습니까?							
수면 장애가 있습니까?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주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납니까?							
Circulatory Symptoms							
열이 위로 오르는 증상이 있습니까?							
으슬으슬 춥습니까?							
춡다가 덥다가 하는 것이 반복됩니까?							
가슴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땀이 많이 납니까?							
부종이 있습니까? (부위 :            )							
몸이 차갑습니까? (부위 :            )							
빈혈이 있습니까?							
심한 피로감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Digestive Symptoms							
입이 자주 마릅니까?							
식욕 저하가 있습니까?							
소화가 잘 됩니까?							
변비가 있습니까?							
설사가 있습니까?							
Musculoskeletal Symptoms							
근육, 관절에 통증이 있습니까? (부위 :            )							
치아나 잇몸에 통증이 있거나 시립니까?							
Urogenital and Breast Symptoms							
절개 후 봉합 부위가 불편합니까?							
출산 후 아랫배 통증이 지속됩니까?							
유방에 열감 있고 딱딱하며 통증이 있습니까?							
Blood Stasis Pattern							
발목이나 손목, 허리가 뼈긋한 일로 통증이 있습니까?							
최근에 넘어지거나 심하게 부딪친 일로 통증이 있습니까?							



일정 부위의 저림 증상이 오래도록 낫지 않습니까?							
몸이 쭈시듯이 아릅니까?							
아랫배가 아릅니까?							
옆구리가 아릅니까?							
야간에 쭈시고 아파서 잠자기 힘들습니까?							
복부에 덩어리가 느껴집니까?							
머리가 잘 듭니까?							
얼굴색이 검습니까?							
입술, 혀, 잇몸색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띄며 어둡습니까?							
눈밑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띄며 어둡습니까?							
대변색이 검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수술(마취 후) 횟수를 체크해주세요.	0	1	2	3	4	5	6

♣ **조리원 퇴실하시는 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

Neuropsychiatric Symptoms	1	2	3	4	5	6	7
두통이 있습니까?							
어지럼증이 있습니까?							
수면 장애가 있습니까?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주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납니까?							
Circulatory Symptoms							
열이 위로 오르는 증상이 있습니까?							
으슬으슬 춥습니까?							
춥다가 덥다가 하는 것이 반복됩니까?							
가슴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땀이 많이 납니까?							
부종이 있습니까? (부위 :            )							
몸이 차갑습니까? (부위 :            )							
빈혈이 있습니까?							
심한 피로감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Digestive Symptoms							
입이 자주 마릅니까?							
식욕 저하가 있습니까?							
소화가 잘 됩니까?							
변비가 있습니까?							
설사가 있습니까?							
Musculoskeletal Symptoms							
근육, 관절에 통증이 있습니까? (부위 :            )							
치아나 잇몸에 통증이 있거나 시립니까?							
Urogenital and Breast Symptoms							
절개 후 봉합 부위가 불편합니까?							
출산 후 아랫배 통증이 지속됩니까?							
유방에 열감 있고 딱딱하며 통증이 있습니까?							
Blood Stasis Pattern							
발목이나 손목, 허리가 뼈긋한 일로 통증이 있습니까?							
최근에 넘어지거나 심하게 부딪친 일로 통증이 있습니까?							

일정 부위의 저림 증상이 오래도록 낫지 않습니까?							
몸이 쭈시듯이 아릅니까?							
아랫배가 아릅니까?							
옆구리가 아릅니까?							
야간에 쭈시고 아파서 잠자기 힘듭니까?							
복부에 덩어리가 느껴집니까?							
멍이 잘 듭니까?							
얼굴색이 검습니까?							
입술, 혀, 잇몸색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띠며 어둡습니까?							
눈밑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띠며 어둡습니까?							
대변색이 검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수술 (마취 후) 횟수를 체크해주세요.	0	1	2	3	4	5	6